

다시 푸는 경서

虛雲和尚의 참선요지 25

他老人家也一樣大悲心切
타노인가야일양대비심절

일장대병 변규고려천

대체로 귀엽게 지란 경우에는 습기를
잊지 못하여
사소한 정신적인 고통을 받아 들이지
못하고 가벼운 육체적 고통도 견뎌내지
못하니

或臘月三十到來 便手忙脚亂
혹달월삼십도래 변수망각란

그러다가 (인생의) 선달 그름날이 되
어서야 문득 허둥지둥하게 되지만
평생의 일음알이는 한 점도 써먹을데
가 없게되니 그제야 후회한들 이미 미
치치 못하게 된다.

저 노장이 한결같이 재비심이 간절하여
우리들이 장원하고 절실한 마음을 내
지 않을까 심히 열려하여
저토록 지중한 다짐을 하고 있으니
우리들을 향한 보증을 한 것이다.

用功人有兩種難易 一初用心的難易二
용공인유양종난이 일초용심적난이이

초용심적통병 취시망상습기방법
下來
하래

無明 真高 姨姑 障礙 貪瞋癡愛漸微
무명 공고 질부 장애 탐진치애외주

是非凡人 我深一七壯支 那能與道相應
시비인아 장만일대두피 나능여도상응

“공부 마친듯 아만 일으키면 큰병만나
알음알이 쓰지도 못하고 후회하게 된다”

공부하는 이에겐 두가지 어려움과 쉬
움이 있다. 하나는 초심자의 난이요 둘
은 오랜 이의 난이이다.

(-)처음 공부할때의 병통은 망상과
습기가 놓이지 않는 것이다.
무명과 자존심 질투 장애 탐진치 애
착 미움 등을 짓고 즐겨 받아먹고
옳으니 그러나, 너니 내니하며 뱃가죽
만 늘리면서 어떻게 도에 상응할 수 있
겠는가.

有難道心的人 又摸不着一箇下手處
유집도심적인 우모불착일게하수처

약간의 도심이 있는 이는 또 어디서
부터 시작해야 할지를 찾지못한다.
혹은 망상을 두려워해 앉고 또 없
애려하나 끊이지 않아 종일토록 번뇌에
시달리고

스스로 원망해 엄청난 무겁게 하니
그로인해 도심은 사라지고 만다.

어떤 이들은 망상과 더불어 목숨까지
내버릴 듯이 씨근대며 주먹을 불끈쥐고
기를 돋우며
가슴을 내밀고 눈을 부릅떠 무슨 일
을 낼것같이 살기를 보인다.

龍眼

불도중생(佛不度衆生)
중생각지도(衆生各自度)
불약도중생(佛若度衆生)
중생하유랑(衆生何流浪)

부처가 중생을 제도하는 것이 아니고
중생이 각자 스스로 제도하는 것일뿐
부처가 중생을 제도하는 것이라면
어찌하여 중생이 유랑하는가.

대부분의 불자들은 부처님이 중생을
제도해 주신다고 믿고 있습니다. 종교인으
로서 그런 믿음을 갖는게 잘못된 것이라
할 수는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불교의 본래의미를 잘 모르면서 비롯된 것
입니다. 부처님이 여러분께 복을 주시고 여
러분을 극락으로 이끌어 주실 것이라고 생
각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부처님께 절하
고 기도하고 염불하면 부처님이 다 들어
주신다는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오용하
는 것이지 불교를 바르게 믿는 것이 아니
라는 것입니다.

그럼 누가 여러분께 복을 주고 극락을
주고 평안을 주겠습니까.
여러분 자신입니다. 앞에 소개한 구절을
생각해 봅시다. 부처님이 중생을 제도하시

“제불보살은
자기 마음에 있어요
그런데 중생들은
대상으로서 섬기고
형상에 넋을 잃는
오류를 쉽게 범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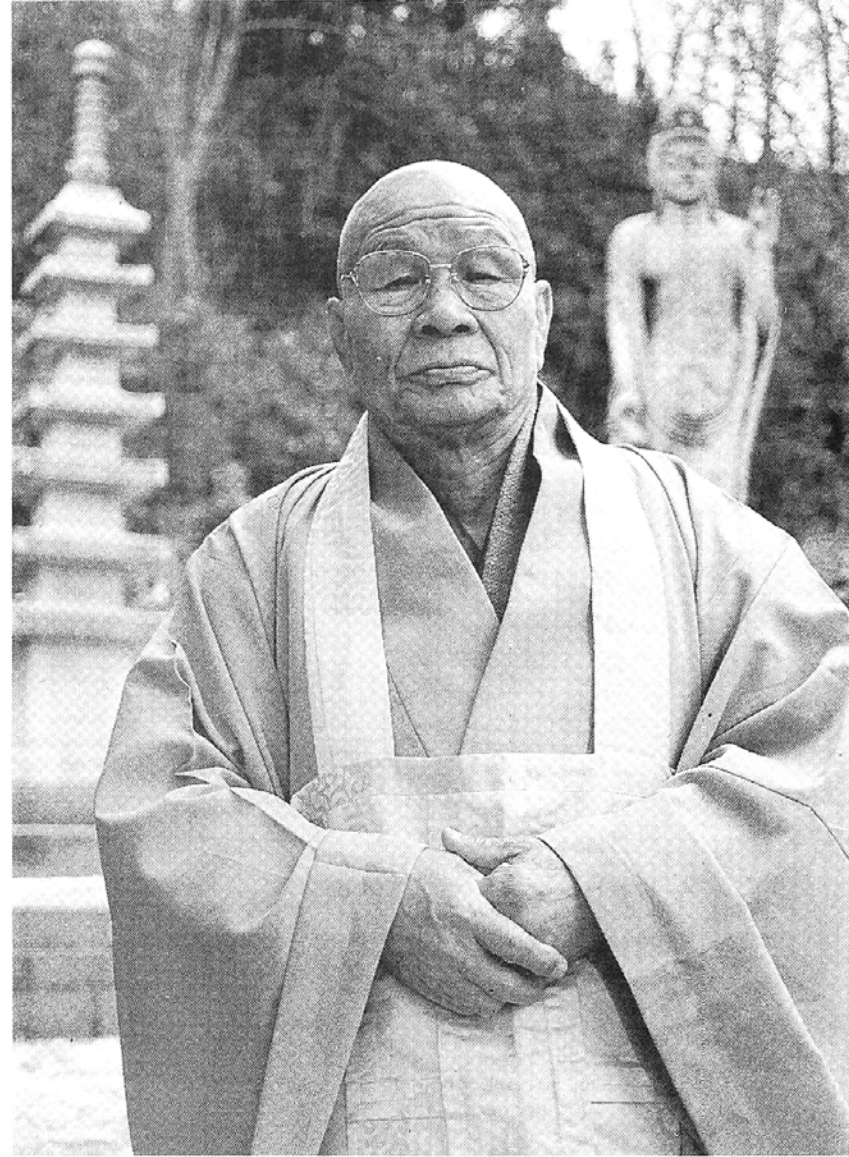
는 것이라면 지금처럼 가난하고 굶주리고
고달픈 인간의 삶은 없어야 합니다. 대자대
비의 부처님께서 그런 환난을 나몰라라 하
고 계시리가 만무한 것 아닙니까. 그 한량
없는 대비심으로 모든 고통받는 중생을 고
통이 없는 곳으로 이끌어 주셨을 것이 아
닙니까. 그런데 인간의 세상은 싸움과 병마
와 질병이 끝이 없습니다. 이 끝없는 환난
속을 사는 중생이 바로 유랑의 중생입니다.
왜 유랑을 합니까.

스스로 자신을 구제하려 하지 않기 때문
입니다. 역경의 운회 속에서 스스로 중생과
(菩)를 벗으려는 발원을 하지 않았고 성불
의 공역을 쌓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과
보로 현생의 고통을 받는 경우도 있고 그
악습을 못버려 현생의 환난을 자초하는 경
우도 있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현생에서 마
져 노력하지 않고 선공덕을 외면하는 것
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인간의 몸을 받고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부처님의 무량한 법을 만났습니다.

야옹스님 (승려사 주진)

- 1917년 경북 선
산 생
7세대 사물산 대
승로 출가
백용성스님을
계사로 비구계
수지
대승사 강원서
이력마치고 예전
유문사등서 강법
42년 일본 유학,
임제대와 용곡대
졸업
총회중 8, 11대
중정
저서 <일여의 경
지> <금강경오기
해역강>등



이보다 더 귀한 인연을 얻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 인연을 만났을 동안
스스로를 구제해야 합니다. 구제한다는 것
은 다름 아닌 해탈성불을 말하는 것입니다.
중생계를 더이상 유랑하지 않고 절대자유
의, 절대진리의 세상에서 절대자유와 절대
진리의 몸을 받는 것입니다.

이후 설법으로 이어지는 부처님의 현세행
로인 것입니다. 그러나 중생은 스스로 갖추
고 있는 법신을 보지 못하고 중생의 소견
과 중생의 눈과 중생의 입맛만을 고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그런 다생의
여러 중생들이 각자의 근기에 따라 성불의
길을 헤아려 걸을 수 있도록 다양한 모습
과 다양한 말씀으로 성불의 방편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경전을 공부하는 것이나 참선수행 염불
수행을 하는 것이나 다 성불로 이르는 길
을 스스로 헤아려 가는 과정입니다. 이 과
정이 바로 자신을 구제하는 과정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미 방편은 수없이 제시되어 있
으니 중생이 그 방편을 믿지 않거나 못

채 하거나 찾지 못하는 것입니다. 혹은 그
방편에 의지하려는 습이 익고 익어서 그
방편에 그달려 다니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방편에 그달려 본업(스스로를 구제하는
것)을 망치는 것은 차라리 그 방편의 행적
을 모르는 것보다 못한 일입니다.

부처님이 중생을 제도해 주신다는 믿을
을 갖는 것은 방편에 그달려 버리는 경우
입니다. 어떤 사람이 '염불을 열심히 하면
부처님이 소원을 들어 주신다'는 믿음을
갖는다고 합니다. 잘못된 믿음이 아니라
여겨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말하자면 잘못
된 것이기도 하고 잘못된 믿음이기도 합니
다. 여기서의 시(是)와 비(非)는 '부처님이 소
원을 들어주신다'는 믿음에서 부처님이 누

대원불교대학

학생모집

(2년제 야간, 전문과정)

- 모집학과 : 불교학과 출강과정 00명
통신과정 00명
연구과정 00명

지원자격 : 진실한 불자가 되고자 하는 자
연구과정은 교양대학 졸업자 및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되는자

강의시간 : 출강/통신 - 주 5일 오후 7시~8시 30까지
연구과정 - 주 2일 오후 2시~4시까지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 1997년 2월 28일까지

불교 대중화를 선도하는
대원불교대학이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 20년 역사의 불교계 최초 전문교육기관
교계 최고의 강사진

교과목 : 주 5일 수업

Table with 5 columns: Year, Semester, Course Name, Teacher Name, and Subject Name.

과목은 사정에 따라 약간씩 변경될 수 있음

- 특전 : 졸업후 1. 포교당 개설시 지원 상담
2. 소정의 법사교사를 거쳐 법사호 수여
3. 포교당 개설시 법인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음
* 기타 상세한 사항은 본교로 문의바람

대원불교대학

주소 : 140-190 서울시 용산구 후암동 358-17
전화 : 776-7156, 773-9171, 754-1613/ 팩스 : 756-7258